

학교생활

코로나19 확진을 받거나 격리 통지를 받을 경우 성적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개학이다 뭐다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벌써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에 코로나19 확진을 받거나 격리되면 시험을 치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경우 성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학생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격리 대상자인 경우도 궁금합니다.

이미영(51·서울 강동구 암사동)

A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100% 인정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을 받거나 학생 또는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았다면,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중 고사 기간 학교에서 별도의 고사실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100% 인정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점은 결시 이전·이후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성적으로,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에 준합니다.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절차에 따라 각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서울 용문고 최낙원 교감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학생은 입원치료 통지서, 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은 격리 통지서, 가족이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가족의 격리 통지서를 제출하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치르지 못해도 인정점의 100%가 성적 처리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확인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고사 기간 출석 인정 및 인정점 부여 증빙을 위해서는 고사일 단위로 선별진료소의 진료 확인서가 필요하다. 시험 기간 동안 매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코로나19가 아닌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결시의 경우 고사 기간 학교에서 별도의 고사실을 마련했으나 미응시한 경우에 해당돼, 출석은 인정되지만 성적은 인정점의 80%만 부여됩니다. ㉞

MORE TIP

최 교감은 “학교별 인정점 계산 기준과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시험 난도에 따라 유희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례식을 이용해 계산한다”고 전합니다. 인정점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text{결시 지필평가 인정점} = \text{응시 지필고사 원점수} \times \frac{\text{결시 지필평가 평균}}{\text{응시 지필평가 평균}} \times \text{인정점 부여 비율}$$

취재 박민아 리포터 minapark@naeil.com



입시

A ‘사회 통합 전형’은 기존의 전형들 확대·강화해 ‘유도’에서 ‘법제화’한 개념입니다.

지금도 사회 배려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른 기회 특별 전형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장 추천 전형 등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회 통합 전형을 법제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충남 대천고 이미경 교사는 “사회 통합 전형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형과 지역 학생을 위한 지역 균형 전형으로 나뉜다. 지방 일반고의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지역 균형 전형이 10% 이상으로 확대되면 학생들의 ‘인 서울’ 진입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2022 입학 전형 계획을 보면 대부분의 대학이 지역 균형 전형을 학생부 교과 중심의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설계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 특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수능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전형을 권하는 편”이라고 설명합니다.

교육부는 올해 고3이 치르는 2021학년 대입에서는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 평가를 통해 사회 통합 전형 선발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이 통과되면 수도권 대학은 내년 2022학년 신입생부터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10% 이상, 지역 학생을 10% 이상 뽑아 사회 통합 전형을 총 20% 이상 운영하게 됩니다. @

교육부가 도입하겠다는 ‘사회 통합 전형’은 기존의 고른 기회 특별 전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 사회 통합 전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 등 지역 균형 선발 전형에도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현재 대학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고른 기회 특별 전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왕수애(48·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MORE TIP

사회 통합 전형 법제화와 관련해 부작용을 염려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고른 기회 선발 비율을 확대해온 데다,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교대 조환재 입학사정관(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장)은 “수도권 대학의 지역 균형 선발은 대체로 지방대와 지원자 풀이 겹친다. 지역 균형 선발 확대로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쏠린다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들이 더욱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사회 통합 전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대의 신입생 선발을 위축시킬까 우려되며 과연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밝힙니다. 취재 홍정아 리포터 jahong@naeil.com